

여자 중·고교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관계연구

전 경 숙

한성대학교 의생활학부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of Middle- and High-School Girls

Kyung-Sook Jeon

Hansung University

Division of Fashion Design & Business

(2001. 3. 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ody cathexis, ideal body shape, clothing satisfaction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The subjects were 445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subjec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ace appearance than body parts. They were very unsatisfied with thigh, leg and weight. Generally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upper body than lower body, and more satisfied with length measurements than girth measurements. They accepted 169.19cm as ideal height and 49.18kg as ideal weight. The middle-school girls wanted to be taller than high-school girls by 3cm. But the ideal weight of both were almost same. The Rohrer indices indicated that the subjects were normal to slender type. But the Rohrer indices calculated using ideal height and ideal weight showed that the subjects thought extremely slender type as ideal body shape.

The attitude of body was evaluated by two factors, the awareness of body shape and the physical attractiveness. The awareness of body shape was deeply influenced by girth measurements and lower body part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was severely affected by face appearance. Weight was more important than height in regard to body cathexis. The ideal body shape was independent of individual situation but was formed by social value. The satisfaction of clothing in terms of design related aspects was influenced by body cathexis. Also th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the more they felt comfortable for their clothing. The body cathexis was inter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of clothing in some aspects.

Key words : body cathexis(satisfaction), ideal body shape, body attitude, satisfaction of clothing; 신체 만족도, 이상적 신체상, 신체태도, 의복만족도

I. 서 론

청소년은 신체적인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므로 외형적인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적응하는데 혼란을 겪게되고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아개념의 확립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제2차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서 12세를 전후하여 체중이 급증하고 신체비례(body proportion)가 변화하여 성인에 가깝게 변화한다. 또한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며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느끼는 시기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을 신체이미지라고 하며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만족/불만족에 대한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허용의 폭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은 설정이다. 또한 이상형에 대한 기준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신체비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의복은 가장 인접한 환경인 동시에 신체의 연장이므로 불완전한 자아를 보충하는 가변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체이미지에 따라 의복과 관련된 행동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이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자아개념의 일부이므로 결국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의류상품의 소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의류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자신의 자아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상품기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의모와 의복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다른 연령층보다 를 것으로 생각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게 있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1) 여자 중·고교생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이미지를 신체만족도로 평가하여 만족/불만족의 정도를 살펴보고 2)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을 알아보자 한다. 3)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4) 신체만족도가 의복에 대한 만족/불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만족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신체이미지라고 하며 신체이미지는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Kaiser(1990)는 신체는 자아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의복은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도구인 동시에 심리적 의미의 자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자아는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신체이미지는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만족 정도를 신체만족도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신체만족도를 의복과 연결시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신체부위에 따라 만족정도가 다르며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만족도가 낮고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재은·남윤자(1999)의 연구에 의하면 18세에서 25세의 여대생들은 키가 크고 몸통은 짧으며 머리와 손, 발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실제치수보다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가 신체만족도와 더 상관이 높은 것은 신체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신체만족도가 자신의 신체 치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

적인 만족정도이므로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기의 여학생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제2차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여학생의 경우 갑작스런 체중증가로 인한 불만감으로 실제 자신의 체형 보다 더 왜곡되게 생각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체형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신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지각을 초래하기도 한다.

2. 이상적인 신체상과 신체태도

이상적인 신체상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시대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의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날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크며 특히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문화의 영향으로 가늘고 마른 신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므로 신체불만감이 증가하고 지나친 식이요법이나 체중조절행동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며 여학생의 20%가 빙혈상태에 있다는 보고도 있다(조선일보, 1997). 1992년도와 1997년도의 자료를 비교한 연구(정재은·남윤자, 1999)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1992년도에 비해 1997년도에는 더 마르고 더 가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와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 의해 이상적 신체상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현실보다 과장되게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갖게되며 상대적 불만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적 신체상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다양한 보완수단을 개발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복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상적인 신체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의복을 통한 추구혜택에도 관심이 커진다고 하였다(황진숙, 1998).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의복관심이 매우

높아서 의복의 유행스타일에 따라서 체형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3.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신체만족도에 따라 사회적 성취도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복 관련 행동도 달라지는 것으로 선행연구(김양진, 1992)는 지적하고 있다.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성아(1991), 김양진(1992), 이부희(1996), 심정은(1997) 등의 연구가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수지·이인자(1996), 주재은(1998), 정재은·남윤자(1999), 황진숙·나영주(1999), 박우미(2000) 등의 연구가 있고 중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관련 연구는 이영윤(1981), 최유미·손희순(1997) 등의 연구가 있다.

신체만족도와 연결되어 연구되는 의복 관련 변수로는 의복관심이나 유행혁신성, 또는 의복 선호스타일이나 의복구매와 기성복 착용과 관련된 맞음새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Damhorst·Littrell(1984)은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만족과 의복관심과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하였고 Davis(1985)는 자신의 지각된 신체상에 따라 의복이나 유행관심이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복 기능의 중요성 인식이나 의복선택이 신체적 자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많다. 이수지·이인자(1996)는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길이가 짧은 미니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신체만족의 정도와 기성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LaBat·DeLong, 1990)도 있다. 주재은(1998)은 성격과 신체만족도, 그리고 의복선택이미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신체에 만족할수록 화려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고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소박하고 보수적인 의복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III.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자료수집은 200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울에서 수집되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으로 여중생과 여고생에서 모두 2학년으로 하였다. 광진구, 성북구, 강남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을 선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2개 학급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486부가 배포되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에서 44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445부 중 여중생은 220부이며 여고생은 225부이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신체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김양진(1992), 조성아(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얼굴부위 5문항과 체중, 신장을 포함한 2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신체부분에 대한 만족/불만족 정도의 평가는 1점은 '매우 불만족한다', 2점은 '불만족한 편이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만족한 편이다', 5점은 '매우 만족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충실지수는 Rohrer index로 평가하였으며 산출방법은 $R.I. = (\text{체중}(\text{kg}) * 10^3 / \text{신장}^3(\text{cm})) * 100$ 로 계산하였다. Rohrer index의 평가는 1.5이상은 비만형, 1.2에서 1.5사이는 정상형, 1.2이하는 수척형으로 분류하였다(정재은, 1992).

신체태도는 자신의 체형과 전반적인 외모에 대해 느끼는 태도 및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심정은 1997 코연드에서 발췌하여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정말 그렇다'를 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외출용 의복을 기준으로 대답하도록 하였고 김혜원(1996), 이연희(1996)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에서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역시 5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신장과 체중을 묻고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을 답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ackage를 사용하였고 여중생과 여고생 사이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t-test를 실하였다. 신뢰도 검정으로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신체태도의 문항은 요인분석을 하였

다. 그 외에도 회귀분석과 변량분석, 상관계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토의

1. 신체만족도에 관한 분석

신체만족도의 측정에 사용된 신체항목은 모두 21개이다. <표 1>은 만족정도가 가장 높은 5항목과 만족정도가 가장 낮은 5항목을 응답자 전체의 순위대로 작성하고 여중생과 여고생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만족정도가 높은 항목은 팔길이, 입술, 목, 눈, 이마로 두 집단에서 일치하였으나 순위는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5항목을 보면 응답자들은 신체부위보다는 얼굴부위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에서 23세의 신세대 여성의 신체만족도를 측정한 주재은(1998)의 연구에서도 만족한 부위는 얼굴, 상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불만족 항목 중 가장 불만족한 항목은 허벅지이며 그 다음으로 장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체전반, 체중, 엉덩이둘레가 그 다음으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순위는 여중생과 여고생에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정재은·남윤자(1999)의 연구에서도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엉덩이둘레, 체중의 순으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응답자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박우미(2000)의 연구에서도 하반신 중에서 다리와 엉덩이 부위의 만족이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여학생 모두가 하체부위와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중생과 여고생의 만족항목에서는 목을 제외하고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불만족항목에서는 대체로 여고생의 불만이 여중생보다 크며 허벅지, 하체 전반, 엉덩이둘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만족/불만족 정도가 큰 신체항목

	신체항목	신체만족도			
		전체	여중생	여고생	t-value
만족항목	1. 팔길이	3.28(0.93)	3.33(0.94)	3.23(0.92)	1.18
	2. 입술	3.14(1.02)	3.16(1.04)	3.11(0.99)	0.52
	3. 목	3.10(0.95)	3.21(0.89)	3.01(1.01)	2.26*
	4. 눈	3.09(1.12)	3.17(1.14)	3.01(1.10)	1.52
	5. 이마	3.02(0.97)	2.99(0.99)	3.05(0.95)	-0.75
불만족항목	1. 허벅지	2.03(0.98)	2.12(1.05)	1.94(0.92)	2.01*
	2. 장딴지	2.20(1.01)	2.28(1.04)	2.13(0.98)	1.56
	3. 하체전반	2.34(1.03)	2.47(1.06)	2.22(0.98)	2.57**
	4. 체중	2.40(1.15)	2.50(1.17)	2.30(1.13)	1.87
	5. 엉덩이둘레	2.42(0.99)	2.52(0.98)	2.33(1.00)	2.01*

*p<0.05; **p<0.01, 팔호 안은 표준편차임.

조사에 사용된 21항목을 신체부위별로 분류하여 신체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얼굴부위는 얼굴생김새, 입술, 코, 눈, 이마의 5항목, 상체부위는 어깨, 목, 등, 상체 전반, 가슴의 5항목, 하체부위는 허벅지, 장딴지, 하체 전반, 다리길이, 엉덩이둘레의 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길이항목은 다리길이, 팔길이, 신장의 3항목이며 둘레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팔굵기, 체중의 5항목으로 나누었다.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는 상체부위의 만족이 높고 하체 부위의 만족이 낮으며 길이항목에 대한 만족이 둘레항목에 대한 만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은 여중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상체부위, 하체부위, 둘레항목의 만족도가 여중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체보다 하체에 불만이 높은 것은 기성복의 경우 상체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제작된 하의가 신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체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의복 경향이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보다는 바지 착용 위주이며 바지스타일이 허벅지에 피트되는 형태가 유행이기 때문에 하체부위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현재 신장과 체중 및 자신이 성인이 된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을 기입하도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신의 현재 신장과 체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160.89cm이며 체중은 49.75kg이다. 성인이 된

<표 2> 신체부위/항목의 신체만족도

신체부위/항목	Cronbach's α	신체만족도			
		전체	여중생	여고생	t-value
얼굴부위	0.7226	2.96(0.69)	3.00(0.72)	2.93(0.66)	1.05
상체부위	0.7791	2.91(0.71)	2.99(0.67)	2.83(0.74)	2.47*
하체부위	0.8392	2.31(0.80)	2.40(0.82)	2.22(0.79)	2.32*
길이항목	0.7250	2.78(0.86)	2.84(0.84)	2.73(0.88)	1.42
둘레항목	0.8340	2.53(0.82)	2.62(0.83)	2.45(0.81)	2.29*

*p<0.05, 팔호 안은 표준편차임.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응답자 전체 평균이 169.19cm로 여중생은 170.75cm, 여고생은 167.76cm로 여중생이 2.99cm 더 크게 나타났다. 여고생의 경우 이미 성장의 둔화가 시작되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이 된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중은 49.18kg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을 조사한 정재은·남윤자(1999)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166.46cm를 이상적인 신장으로 생각하고 49.16kg을 이상적인 체중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보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약간 작으며 체중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중은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에서 모두 같으며 신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커지고 싶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체충실지수인 Rohrer 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현재 1.19에서 1.21정도로 약간 마르거나 정상 상태로 볼 수 있으나 두 집단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으로 Rohrer 지수를 계산한 결과 여중생은 1.00, 여고생은 1.04로 계산되어 매우 마른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이미지는 신체계측치보다 자신의 평가와 더욱 관련이 깊다고 한 선행연구(최유미·손희순, 1997)처럼 현재 마른 편인데도 과체중인 것으로 생

각하고 매우 마른 상태를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이나 체중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미의 기준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류업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을 기준으로 상품의 디자인이나 패턴에 사용하는 사이즈 스펙을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마르고 가는 체형을 이상형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에 자신의 신체를 맞추려하는 부작용이 형성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보다 만족감을 얻기 위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주면서 이상형에 근접하게 보일 수 있는 의복스타일을 원하고 있다. 이상형의 범주에 속하는 만족한 소비자는 극히 일부이므로 기성복 디자인이나 맞음새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체형에 대한 불만감도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체태도에 관한 분석

신체태도에 관한 8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나뉘어졌고 이는 심정은(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 의식하는 내용의 5문항과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 평가한 3문항이며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s

<표 3> 현재 치수와 이상적인 치수의 비교

측정 내용	전체	여중생	여고생	t-value
현재 신장(cm, A)	160.89(4.91)	159.93(5.38)	161.80(4.42)	-4.03***
이상적인 신장(cm, B)	169.19(2.34)	170.75(3.25)	167.76(2.63)	10.79***
t-value	-33.43***	-28.93***	-23.86***	
현재 체중(kg, C)	49.75(6.64)	48.51(7.40)	50.98(5.78)	-3.71***
이상적인 체중(kg, D)	49.18(3.71)	49.40(4.29)	48.98(3.11)	1.20
t-value	2.31*	-1.37	5.88***	
현재의 Rohrer 지수(E)	1.20(0.14)	1.19(0.16)	1.21(0.13)	-1.37
이상적 Rohrer 지수(F)	1.02(0.09)	1.00(0.10)	1.04(0.07)	-5.22***
t-value	26.09***	16.95***	20.95***	

*p<0.05; *** p<0.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E=(C*10³/A³)*100, F=(D*10³/B³)*100

<표 4> 신체태도에 관한 문항의 요인분석

문 항 내 용	요인 1: 체형의식	요인 2: 신체매력성
-나는 내 체형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이 된다	0.87	
-나는 종종 뚱뚱하다고 느낀다	0.83	
-나는 더 날씬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0.80	
-나는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0.71	
-나는 특히 내 체형을 의식하게 만드는 옷을 피하려 한다	0.53	
-나는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느낀다		0.85
-사람들은 종종 내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한다		0.84
-나는 때때로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		0.77
고유치	3.24	1.81
총 변량에 대한 설명률(%)	40.5	22.7
누적설명률(%)	40.5	63.2

a는 요인 1의 체형의식은 0.8157, 요인 2의 신체매력성은 0.7764로 모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의식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신체매력성은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신체태도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체형의식과 신체매력성을 종속변인으로 얼굴부위, 상체부위, 하체부위, 길이항목, 둘레항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체형의식은 둘레항목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을 비롯한 둘레항목의 만족도가 자신의 체형을 의식하는데 중요한 신체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은 둘레항목에 대해 불만족인 응답자가 체형의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체형의식은 하체부위의 만족도와는 관련이 크지만 상체부위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매력성은 얼굴부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매력이나 이성에 대한 자신감은 신체부위 중에서 얼굴생김새를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 것도 신체매력성이 신체부위보다는 얼굴생김새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체부위 중에서는 둘레항목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아서 가늘고 마른 체형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태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평가를 살펴보면 <표 6>에서처럼 신체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점 이하로 나타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약간 불만족하고 있으며 여고생의 신체불만족이 여중생보다 더

<표 5> 체형의식과 신체매력성에 관한 신체만족도의 영향

측정변인	신체부위/항목	β	t-value	R ²	F-value
체형의식	둘레항목	-.52	-10.32***	.47	127.91***
	하체부위	-.27	-4.57***		
	길이항목	.12	2.53*		
신체매력성	얼굴부위	.40	9.53***	.35	77.56***
	둘레항목	.23	5.29***		
	길이항목	.12	2.91**		

*p<0.05; **p<0.01; ***p<0.001

<표 6> 신체만족도 및 신체태도에 대한 여중생과 여고생의 집단간 비교

측정내용	전 체	여 중 생	여 고 생	t-value
신체만족도	2.71(0.58)	2.78(0.57)	2.65(0.59)	2.44*
체형의식	3.16(0.88)	3.07(0.87)	3.24(0.90)	-2.08*
신체매력성	2.73(0.80)	2.71(0.81)	2.74(0.78)	-0.49

*p<0.05, 팔호 안은 표준편차임.

크다. 고애란·진병호·심정은(2000)의 연구에서도 여중생이나 여대생보다 여고생이 자신의 체형을 가장 많이 의식한다고 하였다. 신체매력성에 대한 평가는 3점 이하로 나타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신체매력성은 얼굴부위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5 참조).

결국 여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도가 낮으며 과체중으로 의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늘고 마른 체형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많이 접한 이 연령층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체가 이상형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와 체형의식, 신체매력성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체만족도와 체형의식은 -0.5707,

신체만족도와 신체매력성은 .5607로 중정도의 상관을 갖고 있다. 신체만족도와 체형의식은 부적인 관계, 신체매력성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체형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덜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체만족도에 따라 신체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체만족도에 따라 조사대상자 집단을 분류하였다. 신체만족도에 따라 세집단으로 분류하여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체만족정도가 높은 '고집단'으로 하위 25%를 '저집단'으로 신체만족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가운데 50%를 '중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신체만족도 '저집단'은 110명, '중집단'은 217명, '고집단'은 118명이며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신체만족도에 따라 분류한 세집단은 현재의 신장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중에 관해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집단

<표 7> 신체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의 특성

신체만족도 측정항목	고집단	중집단	저집단	F-value
현재의 신장(cm)	161.68(4.98)	160.53(4.84)	161.05(5.12)	1.96
현재의 체중(kg)	47.26(6.08) a	49.73(6.56) b	52.84(6.63) c	17.72***
이상적인 신장(cm)	169.68(3.63)	169.08(3.05)	168.99(3.36)	1.55
이상적인 체중(kg)	49.12(3.68)	49.21(3.98)	49.16(3.18)	0.02
체형의식	2.48(0.83) c	3.15(0.77) b	3.80(0.67) a	85.86***
신체매력성	3.24(0.73) a	2.74(0.68) b	2.15(0.68) c	71.22***

***p<0.001, 팔호 안은 표준편차임.

문자는 SNK검정결과로 같은 문자는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의미함.

에 비해 고집단은 체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체의 만족에는 신장보다는 체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개인의 신체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형의식, 신체매력성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체만족이 큰 집단일수록 체형을 의식하는 정도가 낮으며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분석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구입한 의복에 대한 만족정도로 평가하였다. 신체만족도에 따라 나눈 세집단의 의복만족도의 평가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의복만족도 측정문항을 내용에 따라 4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였다. 디자인 관련 문항으로는 디자인 및 스타일, 품위, 색상, 유행감각, 개성 표현이나 독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관련 문항의 평가는 신체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신체만족도가 클수록 의복의 디자인 관련 5개 문항에 대해 만족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복의 디자인 및 스타일에 대한 만족은 신체만족에 따라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만족이 클수록 의복의 디자인이나 유행성, 개성 표현 등에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복을 자신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이 큰 소비자일수록 의복의 외적 표현요소들에 대한 만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착용과 관련된 문항에는 나에게 어울림, 다른 옷과의 조화, 다른 사람의 반응, 몸에 맞는 정도, 그리고 상황, 용도의 적합성을 포함하고 있다. 착용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도 신체만족도에

<표 8>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의 분석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문항내용		고집단	중집단	저집단	F-value
디자인 관련문항	디자인 및 스타일	4.22 a	4.01 b	3.92 b	6.64***
	품위	3.59 a	3.49 a	3.27 b	5.64**
	색상	4.24 a	4.04 b	4.03 b	3.79*
	유행감각	3.77 a	3.57 b	3.53 b	3.64*
	개성표현이나 독특성	3.42 a	3.31 ab	3.18 b	2.97*
착용 관련문항	나에게 어울림	4.26 a	3.88 b	3.68 c	17.13***
	다른 옷과의 조화	4.20 a	3.94 b	3.83 b	7.16***
	다른 사람의 반응	3.95 a	3.77 b	3.64 b	5.08**
	몸에 맞는 정도	3.98 a	3.82 ab	3.67 b	3.77*
	상황, 용도의 적합성	3.89 a	3.71 b	3.63 b	3.30*
소재 관련문항	소재의 내구성 및 흡수성	3.56	3.50	3.32	2.63
	옷감의 종류와 질	3.92	3.75	3.84	1.75
	세탁이나 관리의 용이성	3.66	3.59	3.53	0.51
	부속품(단추나 지퍼 등)	3.70	3.60	3.65	0.44
기타문항	봉제상태	3.82	3.58	3.56	2.90
	가격	3.49	3.46	3.29	1.48
	상표	3.62	3.52	3.44	1.09

*p<0.05; **p<0.01; ***p<0.001

문자는 SNK검정결과로 같은 문자는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의미함.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가 클수록 의복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구입한 옷이 다른 옷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 착용자의 신체에 대한 만족이 의복 착용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 소재 관련 문항으로는 소재의 내구성 및 흡수성과 옷감의 종류와 질, 세탁이나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부속품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문항은 봉제상태, 가격, 상표의 3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의복의 소재 관련 문항이나 기타 문항은 신체적인 만족정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의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소비자는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기성복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기성복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기성복 만족/불만족은 단순한 물리적 치수에 대한 반응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의류업체의 치수 체계나 기성복 사이즈는 여성들의 기대치의 상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이 기대치에 자신의 신체를 맞추려는 부적절한 노력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기성복에 대한 불만을 의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탓으로 돌려서 신체불만족이 높아진다.

의류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형을 가진 소비자 집단에서 만족한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패턴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류 소비자의 신체 치수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신체에 적합한 디자인과 치수 설정을 통해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체형에 맞는 소비자만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체형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기획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이상적 신체상, 신체태도, 그리고 의복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만족 정도가 높은 항목은 팔길이, 입술, 목, 눈, 이마의 순으로 나타나서 얼굴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가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불만족한 항목은 허벅지, 장딴지, 하체 전반, 체중, 엉덩이둘레로 나타나 하체부위와 체중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에 비해 여고생의 불만이 크며 특히 허벅지, 하체 전반, 엉덩이둘레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 21개 항목을 신체부위에 따라 얼굴부위, 상체부위, 하체부위, 그리고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으로 나누어 집단간 비교를 하였다. 여중생보다 여고생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체부위, 하체부위, 둘레항목에 대한 불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에서 모두 하체부위에 대한 만족이 상체부위보다 낮으며 길이항목보다 둘레항목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현재 자신의 신장과 체중, 그리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을 조사한 결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여중생은 170.75cm, 여고생은 167.76cm로 나타나 여고생은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으로 신체총실지수를 계산한 결과 1.00에서 1.04로 매우 마른 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맞지 않는 신체를 가진 많은 응답자들은 신체불만감이 커지며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체형의식과 신체매력성의 두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체형의식은 둘레항목의 만족정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하체부위에 만족이 큰 경우 체형의식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매력성은 신체부위보다는 얼굴부위의 만족도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신체만족도와 신체태도는 서로 상관이 높아서 신체만족도와 체형의식은 .5707, 신체만족도와 신체매력성은 .5607로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체형을 털 의식하고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에 따라 신체태도가 달라지므로 신체만족도에 따라 상위 25%를 '고집단', 하위 25%를 '저집단', 그리고 가운데 50%를 '중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세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신장은 집단에 차이가 없으며 체중이 작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있다. 신체만족도는 신장보다는 체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이나 체중은 신체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에서 차이가 전혀 없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이나 체중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상적인 신체상은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형성된 특정 체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6.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복만족도의 문항을 내용에 따라 디자인, 착용, 소재, 기타의 4그룹으로 나누어 신체만족도가 다른 세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관련 문항은 신체만족도에 따라 의복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신체만족도가 클수록 자신의 의복 디자인과 스타일에 대해 더 만족하고 더 품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색상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고 유행감각이나 개성표현 등 의복의 표현적인 측면에 더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복 착용과 관련된 5문항에 대해서도 신체만족도가 큰 집단이 더 많이 만족하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만족도가 큰 경우 의복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옷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몸에 맞으며 상황, 용도에도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이 의복의 디자인이나 착용과 관련된 만족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복

의 소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것은 신체만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과악하고 있고 봉제상태, 가격, 상표에 대한 만족 정도도 신체만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만족은 종합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신체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서만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요하며 또한 응답자의 신장과 체중을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지 않고 스스로 기입하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애란·진병호·심정은(2000).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연령·지역차이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의류학회지, 24(4), 475-486.
-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원(1996). 소비자의 의복관여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우미(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이부희(1996). 남녀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지·이인자(1996). 성인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 30, 59-68.
- 이연희(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윤(1981).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유형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정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정재은·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조선일보(1997). 여고생 빈혈에 시달린다. 1997. 5. 21.

- 조성아(199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재은(1998). 신세대 여성의 성격특질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 이미지 선호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유미 · 손희순(1997).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 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 119-130.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황진숙 · 나영주(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복식, 49, 65-72.
- Damhorst, M. L. and M. A. Littrell(1984). Clothing interests and body-cathexis of high school cheerleaders. ACPTC proceedings, 38-39.
- Davis, L. L.(1985). Self-perceived soma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ACPTC proceedings, 250.
-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Macmillan Co.
- LaBat, K. L. and DeLong, M. R.(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